

신성장산업 주간모니터

그린솔루션/항공우주/스몰캡: 나승두, 3773-8891



국내 주요 기업들의 수소 사업 방향성 가늠해 볼 수 있는 주간

- 국내 주요 기업들의 수소 사업 협력을 위한 민간 협의체 '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(KOREA H2 Business Summit)' 7월 6일(수)~7일(목) 양일 간 '인베스터 데이(Investor Day)' 개최
- 수소 기술/인프라 공동 개발, 수소 수요 창출 등 수소 생태계 확산을 위한 수소 펀드 조성 계획(대표 운용사 미래에셋)
- 국제재생에너지기구(IRENA), 뉴욕주연기금(NYSCRF), 런던연기금(LGPS) 등 행사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
- 지난 5월, 국내 대기업 그룹사들의 연이은 투자 계획 발표(총 1,051조 원 규모) 당시 친환경 관련 투자 비중 매우 높아
- 이후 수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되었고 오는 12월 시행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청정수소 생산 및 인프라 구축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 집중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
- 최근 현대차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차 출시 연기 가능성 대두되며 수소 산업 확장성에 대한 우려 커졌지만, 상용 시장 중심의 수소연료전지차의 역할은 여전히 굳건한 상황, 국내 노면청소차 등 상용화 보급 시작
- 민간 기업 중심의 적극적 투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자체가 긍정적, 투자 분야 및 방향성에 관심 높일 시점

※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(KOREA H2 Business Summit)

: 2021년 9월, 국내 17개 회원사로 구성된 민간 수소 협의체, SK/현대차/두산/한화/포스코/효성/롯데/일진 등 참여

국내 주요 기업 수소 투자 계획 발표 내용(2022.05.)

두산	SMR, 가스/수소터빈, 연료전지 등 5조 원
롯데	수소/전지 소재 5년간 37조 원
포스코	그린 철강, 수소, 친환경 인프라 5년간 53조 원
한화	수소 혼소, 수전해 설비 등 5년간 37.6조 원
현대차	수소 원천기술, 인프라 등 25년까지 63조 원
GS	블루수소(암모니아) 등 26년까지 21조 원
SK	수소/풍력/전기차 등 5년간 247조 원

상용화 시작된 현대 수소 노면청소차





Compliance Notice

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
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.
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